

한미약품, 개량·복합신약 출시 속도… “10년 내 5조 매출”

기업설명회

박재현 대표 등 핵심 경영진 참석
혁신신약 중심 중장기 성장 실현
글로벌 본부 통해 마케팅 강화

한미약품이 10년 내 매출 5조원,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미약품은 11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호텔에서 애널리스트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열고 중장기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비롯해 최인영 R&D 센터장, 김나영 신제품개발본부장, 박명희 국내사업본부장, 신해곤 글로벌사업본부 상무 등 한미약품에서 핵심 사업들을 맡은 본부장들이 직접 참석했다.

한미약품의 앞서 올해 3분기 기준 누적 매출액은 1조1144억원으로 지난 2023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857억원으로 전년 동



한미약품 본사 전경. (왼쪽사진) 박재현 대표

/한미약품

기 대비 23% 성장한 규모다.

다만 한미약품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잠정 실적으로는 매출 3621억원, 영업이익 510억원, 순이익 350억원 등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7%, 11.4%, 42.3% 감소했다. 직전 분기인 올해 2분기 실적과 비교해도 각각 4.2%, 12.3%, 25.3% 줄었다.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은 3분

기 연결기준 매출 843억원, 영업이익 150억원, 순이익 128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분기는 영업일수 감소, 중국 현지 자연 재해 등 물리적 환경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매출이 다소 주춤했다는 것이 한미약품 측의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약품은 현재 지주회사와 겪고 있는 경영권 갈등 이슈가 아닌 한미약품 본연의 사업 성과와

미래 계획을 3단계에 걸친 ‘중장기 전략’으로 공유했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한미약품은 오는 2025년까지 국내 시장에서 초격차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한미약품은 다음 단계로는 2026~2028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면 2029~2033년 혁신신약 중심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은 우선 올해 전문의약품 시장 초격차 1위 지위를 지속하고 매출 및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올해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한미약품은 원외처방 실적을 꾸준히 성장시켜 왔다. 1분기 2599억원, 2분기 2595억원, 3분기 2679억원으로 매분기 성장세를 이어왔다. 로수젯, 아모잘탄, 에소메졸 등 만성질환 분야 치료제가 선전했다는 것이 한미약품 측의 설명이다. 특히 로수젯의 경우 국내에서 개발된 전문 의약품 가운데 최초로 원외처방 2000

억원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은 새로운 개량·복합신약의 연이은 출시를 예고하며 견고한 성장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오는 2025년에는 ‘다파론F’가블록버스터 제품으로 등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미약품은 최근 다파글리플로진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 라인업인 ‘다파론패밀리’ 6종 출시하고, 처방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판매 전략에 돌입한 바 있다.

이밖에 한미약품은 신약개발 명가라는 역량을 쏟아내기 위해 ▲신제품 개발본부 및 제제연구소 ▲ R&D 센터 ▲글로벌본부 등을 중심 축으로 내세웠다. ‘신제품개발본부 및 제제연구소’는 신규 용법, 용량 등 새로운 적응증을 위한 개발에 집중한다. ‘R&D센터’는 새로운 모달리티로 퍼스트인클래스를 정조준한 파이프라인 구축에 힘쓴다.

한미약품은 ‘글로벌본부’를 통해서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mllee236@metroseoul.co.kr

신제품

애경산업

씨솔루션 토너·세럼

생활뷰티기업에 경산업은 기능성비건 화장품 브랜드 닷솔루션에서 ‘씨솔루션 히알루론시카 수딩 스킨케어 버블 토너와 세럼(사진)’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모두 500달톤의 ‘저분자 히알루론산’, ‘병풀추출물’과 ‘병풀의 핵심 ‘시카 액티브 테카’ 성분, 피부의 유수분 균형을 관리해 주는 ‘징크 피씨에이’ 등을 함유하고 있다.

두 제품 모두 인체적용시험에서 손상된 피부를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청하 기자

KT&G “2027년까지 ROE 15% 달성, 3.7조 주주환원”

기업가치 제고계획 발표
올해 자사주 매입·소각 확대

KT&G가 2027년까지 ‘ROE 15% 달성’, ‘3조7000억원 규모 주주환원’을 골자로 한 ‘KT&G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밝혔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은 ‘수익성 향상’, ‘자산 효율화’, ‘재무 최적화’를 통해 2027년까지 ROE(자기자본이익률)를 현재 10%수준에서 15%까지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KT&G는 본업 중심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회사의 3대 핵심사업(해의퀵런·NGP·건기식)을 축으로 각 사업 내 중점 영역을 구체화하고, 지속적인 확장을 통해 사업운영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 저수익·비핵심 자산의 구조개편을 통해 약



KT&G 사옥 전경

1조원 규모의 누적 현금을 확보하고, 해당 재원은 성장투자과 주주환원에 활용해 자본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생산 파트너십 강화 등 Capex 투자전략 혁신을 통해 투자 효율성도 높일 예정이다. KT&G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Capex 투자계획(2023년~2027년)을 효율화해 2조4000억원 규모로 조정했다. 투자 규모 효율화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했던 생산 능력 확대와 투자 기대수익률은 기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내의 최고 수준의 주주환원 정책도 강화된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약 2조4000억원의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 1조3000억원원 등 총 3조7000억원에 달하는 주주환원이 추진된다. 이에 더해 자산 효율화로 창출된 재원을 추가 주주환원에 활용하는 ‘KT&G 플러스 알파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추가 재원은 자사주 매입 및

즉시 소각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며, 강화된 주주환원정책에 따라 2027년까지 발행주식총수(1억3382만 2497주·2023년 기준)의 20%가 소각될 전망이다.

새로운 기업가치 제고계획에 따라 올해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규모도 확대된다. 지난 7일 KT&G 이사회는 비핵심·저수익 자산 유동화를 통해 확보된 재원 중 1500억원을 활용해 연내 자사주 135만주의 매입 및 소각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KT&G의 올해 총 주주환원 규모는 기보유 자사주 소각을 포함해 1조4000억원에 육박하고 총 주주환원율은 100%를 상회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 규모 또한 2023년 발행주식총수 대비 약 6.3%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듀켄바이오, 코스닥 상장 절차 돌입

증권신고서 제출… 143만주 공모

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 듀켄바이오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청신호를 켜다. 듀켄바이오는 금융위원회에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고 11일 밝혔다.

듀켄바이오는 이번 상장을 통해 총 143만 주를 공모한다. 희망 공모가는 주당 1만2300~1만4100원이다.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일반 청약 행사를 진행한다.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

듀켄바이오는 상장을 통해 확보하는

공모자금을 ▲생산시설 확충 ▲연구개발 ▲운용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듀켄바이오는 방사성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투자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생산 시설은 오는 2025년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듀켄바이오는 국내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제 시장에서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에자이와 미국 바이오젠이 공동개발한 치매 신약 ‘레켄비’가 오는 12월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어 향후 듀켄바이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청하 기자

GC녹십자, MSCI ESG평가 ‘A등급’

제품 안전·품질 등 고득점

GC녹십자는 공신력 높은 글로벌 평가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네셔널(MSCI)이 실시한 2024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평가에서 직전 평가 대비 3단계 상향된 ‘A등급’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MSCI 보고서에 따르면 GC녹십자는 ▲지배구조 ▲인적자원 개발 ▲제품 안전 및 품질 ▲유해물질 및 폐기물 관리 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GC녹십자는 환경 부문에서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인 ‘ISO14001’을 획득하고, 전 사업장 환경영향실사를 통해 유

해물질 배출 및 폐기물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환경 경영 수준을 높였음을 인정받았다.

사회 부문에서는 인재 파이프라인 개발 전략을 가지고 임직원 성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해 인적자원 개발에 힘쓰고 있음을 높게 평가받았다.

GC녹십자는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주주 가치 제고 및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했다. 특히 사외이사 수를 이사 총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늘렸고, 산업 내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해 이사회 전문성을 확보했다.

/이청하 기자

LG생건

벨먼 바디워시·로션

LG생활건강은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 ‘벨먼’에서 목욕할 때마다 5성급 호텔의 고급스러운 향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바디워시 2종(사진)과 바디로션 1종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벨먼 시그니처 퍼퓸 앤 모이스처 바디워시’는 고급스러운 향기가 돋보이는 제품이다. 하얀 거품이 머리 속에서 연상되는 비누향 계열의 ‘퓨어 머스크’ 향과, 숲 속 나무와 꽃 향기를 구현한 ‘어반 포레스트’ 향이 담겼다. 벨먼 바디로션으로는 퓨어 머스크 향 1종을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들은 벨먼 독자 성분인 ‘보태닉에센스’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 성분은 시어버터를 비롯해 해바라기씨 오일, 레몬밤 워터, 올리브 오일, 아르간 커널 오일, 편백잎 추출물, 캐모마일꽃수 등을 함유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